

“전남광주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 내주 결론”

김대중 교육감 “준비된 학교·과목부터”
초5-6·중1 전면 도입 철회 ‘속도 조절’
교육청장 반발·우려 반영 수용성 확보
‘광주청사 광산구 이전’ 예정대로 추진
전남 동부교육청 신설 방안도 ‘만지작’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8일 “서·논술형 평가를 학교와 과목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내년 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1학년 전면 도입 방침에서 악화된 여론 등을 감안,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김 교육감의 ‘유연한 대응’에 따른 서·논술형 최종 추진 방향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교육청 광주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고력을 높이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평가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 공감하고 있지만 학부모 혼란과 교사 업무 부담 등 현장의 우려가 큰 것 또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전남광주교육청은 내년 1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 평가에서 객관식을 없애고 100% 서·논술형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된 학교와 과목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다음 주께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교육청의 서·논술형 도입 방침에 대

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정책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실제 전교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실천교사모임 등은 최근 일방적인 서·논술형 도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학부모도 역시 사교육 확대, 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부정적인 여론을 주도했다.

김 교육감이 전남광주교육청 출범 100일에 맞춰 핵심 정책인 서·논술형 평가에 대해 단계적 도입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 같은 반발과 우려를 감안,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통합교육청 개청 100일을 맞아 청사 이전·신설 계획도 가시화하고 있다.

노후·협소한 광주청사는 예정대로 광산구 신창동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는 대신,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청사에 배치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남광주 동부권에도 통합행정 기능을 담당할 동부교육청을 신설하고 기존 지역별 교육지원청들은 학교 현장 지원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총 3차례 조직 개편을 거쳐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게 김 교육감의 설명이다.

김 교육감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과 관련, 연간 1조 원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재정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일자리 투자만큼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20조 원 재정 재원의 목표”라며 “새로운 일자리에 지역 아이들이 들어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신수정 북구청장 취임 100일 퍼포먼스

8일 민선 9기 100일을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 소통의’에서 신수정 북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구성 비전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제공)

무안공항 운항 확대 코앞...기상 인력 대책 ‘깜깜’

현재 1인 교대근무...위험 대응 공백 우려

전남광주 난기류 관측 5년 새 24배 급증

신정훈 “재개항 전 비상체계 등 점검해야”

광주공항 국내선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상청이 운항 확대에 대비한 인력 수요 산정자료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공항 기상대가 1인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향후 운항이 늘어날 경우 위험기상 관측과 예보·경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항공기 상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1월 광주공항의 하루 평균 운항 실적은 37편, 무안공항은 7편이었다.

두 공항의 기존 운항 실적을 단순 합산하면 하루 약 44편으로, 현재 무안공항 운항량의 63

배에 달한다. 광주공항 국내선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항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기상관측·예보 인력과 대응 체계 확보가 요구된다.

현재 무안공항 기상대는 정원과 현원이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4명이 각각 1인씩 교대근무하며 항공기상 관측과 예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의 난기류 관측 증가세도 뚜렷하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 고도 2만피트 이상에서 발생한 난기류 관측 건수는 전국적으로 14.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와 인접 해상을 포함한 지역은 24.1배 늘어 전국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심한 난기류’ 관측 역시 전국적으로 4배 증가한 데 비해 전남광주는 7.7배 늘었다. 전국의 심한 난기류 관측 가운데 전남광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5%에서 2025년 12.4%로 높아졌다.

이처럼 위험기상 요인이 커지고 있지만 무안

공항 운항 확대에 대비한 별도의 인력 수요 산정자료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개항에 앞선 관계기관 합동훈련 계획도 아직 기상청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운항 확대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1인 교대근무 체계로 위험기상 관측과 예보·경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비 장애나 근무 공백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무안공항 정상화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은 전남광주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운항 확대에 걸맞은 기상안전 대응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은 관계기관의 계획 통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재개항 전에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예측·탐지하고 적시에 경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상관측·예경보 역량,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보성 말차·초코말차라떼, 美 코스트코 진출 추진

전남광주농기원, 산관연 협력 개발

12월 40개 점포 입점 목표 시범수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은 8일 “보성산 말차를 활용한 ‘말차라떼’와 ‘초코말차라떼’ 2종을 상품화하고 오는 12월 미국 코스트코 40개 점포 입점을 목표로 시범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농기원은 국내의 박람회 전시·홍보와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제품은 전남광주농기원과 보성군, 보성

차생산자조합, ㈜아로마빌거피의 보성 차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성과다.

전남광주농기원은 최근 확대되는 말차 소비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산 차 원료 소비를 늘리기 위해 연구기관의 제품 개발 기술, 생산자조합의 원료 생산, 기업의 제조·유통 역량을 연계했다.

말차라떼에는 보성산 말차를 9% 배합해 말차 특유의 풍미와 기호성을 높였다. 초코말차라떼에는 말차 4.5%와 코코아파우더 9%를 넣어 말차와 초콜릿의 풍미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제품에 사용된 말차는 보성차생산자조합이 직접 생산·공급한다.

/최명진기자

전남광주시, 중앙아시아·몽골서 111만달러 수출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몽골 울란바토르에 ‘2026 중앙아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11만달러(약 14억 9천만원) 규모의 수출협약(MOU)과 4천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 활동에서는 샘플·견적 요청과 독점 공급 제안 등 후속 협의가 이어져 향후 수출계약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시장개척단 상담 결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는 봉강친환경 5만달러, 푸른정식품 1만달

리 등 총 6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또 메사코사, 서광식품, 에스에이치랩, 위로푸드가 각각 1천달러씩 총 4천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했다.

이어 열린 몽골 울란바토르 상담회에서는 서광식품 10만달러, 에스에이치랩 10만달러, 위로푸드 10만달러, 푸른정식품 10만달러, 봉강친환경 5만달러, 성지에프엔디 1만달러 등 총 46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이 이뤄졌다.

/최명진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llanamdo Provincial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City Education Institute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Provincial Education Institute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Gwangju Metropolitan City Traffic Training Institute

전라남도교통연구소 Jeollanamdo Traffic Education Institute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